

젊은 건축학도들의 잔치



뚝뚝, 뚝뚝, 망치질 소리가 흐린 조명속 여기저기서 들린다. 햇빛이 채 안드는 폐광(廢坑)속 같기도 하고, 전철(電鐵)이 막 지나간 어두운 터널 속 같기도 한—.

하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향한 「스타트라인」에 서서 눈치 보듯 마련해 본 작품전이 여느 기성작가의 그것처럼 매끄럽고 빛이 반짝반짝 난다면 그것도 걸맞지 않는 폼행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81학년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이 시작되는 날 전시장 사정은 테이프를 끊기로 한 시각을 조금 넘어서 까지도 정리정돈이 안된 채 마지막 손질에 바쁜 젊은 건축학도들의 숨결에 장내는 늦가을의 냉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공대 건축공학과(학과장 오창희 교수)와 이부대학 건축공학과(학과장 이리형교수) 졸업반학생 1백50여명이 들 혹은 셋 빛이 짝을져 작품 한점씩을 만들어 모두 45여점을 이날 선보인것.

박학재, 박용환 두 교수의 지도

로 그간 준비를 끝낸 작품전은 학생들 말마따나 “숨을 쉬기에는 너무 무더웠던 여름,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안고 왔습니다. …이제 가쁜 숨 몰아쉬며 4년간의 노력을 높이 걸어 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니 말 그대로 덥기도 무척 더웠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각고끝에 “맨발의 거친옷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연계 이번 전시회다. 한마디로 솔직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전시회라고나 할까—.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지난 시간을 참으로 귀중한 교육의 한 장(場)이었다고 기억하는 지도교수의 인사말로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고 “이런것일 수도 있다는 청순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젊은 건축인들의 숨결이 넘치는 무대였다.

내용은 작품들도 젊은이다운 착상이 눈에 띄었다. 「드라마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RESORT HOTEL」 「음악당」 「청년문화센터」 「Y

MCA」 「ART COLLEGE」 「자유의 울타리」 「요트장」 「YOUTH CENTER」 「SPORTS CENTER」 등등 하나같이 거창하고 지극히 미래 지향적인 밝은 착상들이 번쩍거리고 있다.

학생대표 朴基完(건축공학과 4년)군 말대로 좀더 폭넓은 지원과 전시를 위한 시설등만 잘 가꾸어 졌다면 내놓은 손때묻은 작품들이 더 빛을 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공감이 간다.

한편 관계자는 졸업생들의 작품전이 이번 처음으로 시도된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이번을 계기로 매년 거르지 않고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작품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회, 세미나등도 병행해서 열어 명실공히 건축공학의 체계적인 연구에 기여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작품전은 지난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동대학 학생회관에서 열렸으며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상등을 가려 시상도 했다. (*)